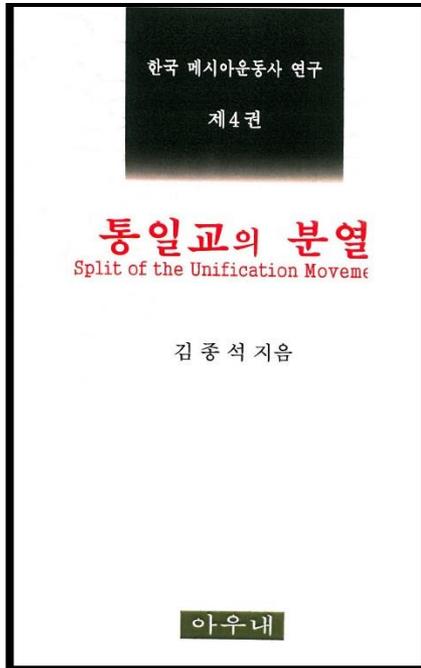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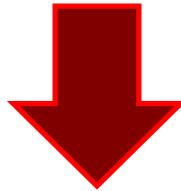
UCI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UCI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언설의 잘못
No.1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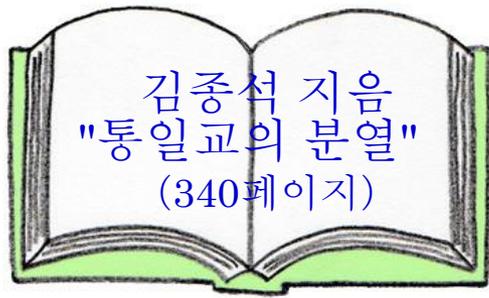
김종석의 저서『통일교의 분열』을 2016년 가을 이후, UCI(소위“곽 그룹”)이 집회에서 확산



이 서적이 UCI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적 내용은, 「참부모」를 불신시키려는 **허위** 스토리





서적의 개요

소책자, 1~2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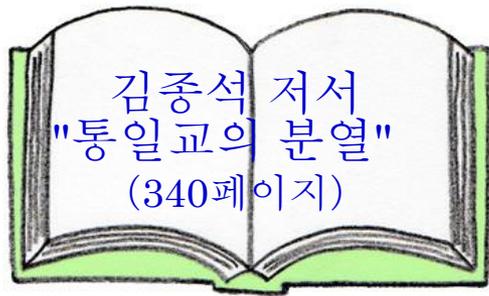
아버님의「후계자」로서 가장 적합한 자는 현진씨이다. 현진씨를 지지하는 곽정환씨는 공무에 엄격하며, 책임이 주어져도 청렴한 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인격자였다.

국진씨는 “거짓말쟁이”이며, 형진씨는 자신의 종교성에 의존하여 통일교회의 전통에 “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양자는 「후계자」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진씨를 대신하여 “후계의 자리”에 등장하게 되었다.

형진씨가 “후계의 자리”에 등장한 배후에는「현진씨를 위기로 느끼고 있었던」 제1세대의 저항이 있으며, 또한 한학자가 있었다. 그들의 책략에 의해서, 현진씨는 수많은 음모에 속아 넘어가서, 후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아버님의 후계에 대한 태도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혼란을 초래했다.

한학자는 아버님의 “혈통”을 의심하고 있으며, 아버님에 대해 「불순종」했다. 한학자의 불순종에 대해, 아버님은 “고심”하고 계셨다는 것이 진상이다.

아버님이 타계한 통일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아버님의 정체성이 한학자의 정체성에 의해 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학자의 타계후에는, 많은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현진씨에 의해서, 통일교회인을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다.



서적의 문제점

전술한「음모설」의 스토리를 뒷받침하려고 곳곳에서 말씀의 “은폐,, , “말씀개찬”을 하고 있는 것

서적내용은 허위 스토리 !

현진님과 곽정환 씨를 추어주면서, 한편에 참부모님을 얽보고있다.

아버님의 후계에 관한 “질서,, 는 명확

소책자,2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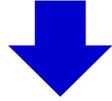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책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딸이에요. 아들이 해야 된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해야 된다고요. 후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벌써 전통적으로 다 돼 있어요」
(말씀선집318-260, 2000.3.10)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말씀선집202-83~84, 1990.5.6)

「선생님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이고, 어머니가 혼자 있어도 부모님 대신입니다. ‘레버런 문이 고회를 지나고 70이 넘었으니까 후계자가 안 나와?’ 하는 그런 말은 집어 치워요.···선생님이 제1 교주, 그다음에 어머니는 제2 교주다 이거예요」(말씀선집201-127~128, 1990.3.27)

2000년3월, 현진님이 CARP 세계부회장에 취임

그 무렵부터, 그 관계자들이 현진님을 아버님보다 앞세우면서 보고하게 되...



아버님의, 현진님에 대한 "경고" 말씀

소책자, 2페이지

「아버지의 전통을 따라서 어머니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세 번째가 아들이야. 그거 알아? ...어머니 전통을 세우기 전에 아들 전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말씀선집323-83, 2000.5.31)

「현진이는 내가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데 선생님보다 앞세워 가지고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통일교회 작당패가 돼요, 작당 패. ...무섭고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전환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말씀선집323-91~92, 2000.5.31)

어머님 앞에 가장 가까운 아들딸이 제3교주

「내가 없더라도 어머니 앞에 제일 가까운 아들딸이 제3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말씀선집202-83~84)

「장자와 차자는 어머님의 이름 앞에 절대복종해야하는 것입니다. 복종하게 되면, 아버지와 연결됩니다.」(『주요의식과 선포식Ⅲ』151페이지)



『통일교의 분열』은 반대파의 비판에 흡사 !

『통일교의 분열』은 반대파 언론인, 이시이 켄이치로씨의 “통일교회 비판기사”와 흡사하다(일본어판 135페이지에 게재). 아리타 요시후씨도 이시이씨의 기사 속에서 「일본간부 중에는, 삼남 현진씨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진씨는) 원래 인망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H1를 추어지고 있다.

납치감금에 의한 강제탈퇴의 길이 어려워진 반대파가 UCI에 접근하여, 「가정연합 붕괴」를 획책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현진님은, 아버님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아버님 말씀과 모조리 엇갈렸다】

- ① 「One Family Under God, (참부모 없는)하나님 아래 한가족」
- ② 「복귀섭리의 중심은 창시자(주, 아버님)가 아니다」
- ③ 「창시자를 하나님의 실체로서 숭배하고 있다」
- ④ 「자녀님가정을 『참가정』이라고 하는 잘못
- ⑤ 「축복가정을 “양자양녀”라고 하는 잘못
- ⑥ 「창시자의 사명은 특정 종교의 창설이 아니다」의 기만

현진님이 말하는 정체성의 잘못1

①참부모가 존재하지 않는 「One Family Under God,하나님 아래 한가족」의 잘못

「통일교의 핵심 정체성은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표어로 집약된다. 이 표어는.....『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한 혈연관계의 대가족세계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분열』62~63페이지)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사명이 완수된 상태는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가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분열』48페이지)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소책자,27~29페이지

『메시아 없이 직접 하나님에게 가면 되지, 왜 메시아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참부모가 없으면 지상천국의 중심이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안 나오면 천상천국도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패밀리』1982년9월호, 10페이지)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고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횡적인 부모로서, 두 부모가 하나된 그 위에 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천국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8대 교재 교본『천성경』2316페이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의 대가족의 이상세계」(『원리강론』567페이지)

현진님이 말하는 정체성의 잘못2

②「복귀섭리의 중심은 창시자가 아니다」고 하는 잘못

「첫째, 그(문현진)는 복귀섭리의 중심이 창교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임을 주장한다」(63페이지)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소책자, 29페이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모시어서.....드렸더라면, 그때에도 그들이 세운『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위에서 오신 바 메시아를 중심삼고 복귀섭리는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원리강론』253페이지)

「인간 시조는 그의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인간 자신이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원리강론』247페이지)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다 한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십니다. 즉, 창조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연의 아기씨로 와서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원이 되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하러 오십니다.」(『축복가정과 이상천국 I』36페이지)

현진님이 말하는 정체성의 잘못3

③「창시자를 하나님의 실체로서 숭배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잘못

「(문현진은) 창교자와 한학자를 신격화하려는 기존 통일교 신학을 비판한다」
(『분열』63페이지)

「창교자를 창조주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아들』로 인식하여 창교자를 이러한 차원의 메시아로 정의하고 있다.(『분열』63페이지)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소책자,30~32페이지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의 체를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는 인류의 시조인 동시에 천지를 주재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8대 교재 교본『천성경』124페이지)

「하나님은 참사랑을 중심삼고 아담과 해와에게 임재하심으로써 인류의 참부모, 실체의 부모로 계시다가 아담과 해와가 지상생애를 마치고 영계로 들어가면 그곳에서도 아담과 해와의 형상으로 그들의 체를 쓰시고 참부모의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평화신경』41~42페이지)

「재림주님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완성부활섭리는.....주님을 직접 모심으로써 그 책임분담을 완수하여 의로움을 받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시의시대라고도 한다」(『원리강론』192~193페이지)

현진님이 말하는 정체성의 잘못4

④「참가정」을, 참자녀님가정(현진님가정)이라고 하는 잘못

「문현진은.....참가정을 통일교 창교자(주, 참아버님)의 직계가정으로 정의하면서도.....『하나님→참부모→참가정→확대된 참가정』으로 연결되는 절대자 혈통의 확대과정에서 창교자 참가정(직계가정)의 책임을 강조하였다」(『분열』64페이지)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참아버님(창교자)→참가정(문현진가정)→통일교 축복가정→인류』로 이어지는 『혈통복귀신앙』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분열』315페이지)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소책자,32~41페이지

「참가정은 무엇이나? 거기에는 참아버지·참어머니·참남편·참아내·참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사랑의 가정 기반입니다」(8대 교재 교본『천성경』2154페이지)

「사위기대 완성은 뭐냐 하면 참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참가정은 뭐냐 하면 참부모가 있어야 되고, 참남자와 참여자가 있어야 되고, 참부부가 있어야 되고, 참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론적이라구요. 제일 중심이 뭐냐 하면 개인의 목적도 참부모고, 남자 여자의 목적도 참부모고, 아기들의 목적이나 형제의 목적도 참부모라구요」(말씀선집287-140~141)

현진님이 말하는 정체성의 잘못5

⑤ 「축복가정을 “양자양녀” 라고 하는」 잘못

「특이한 사실은 문현진의 혈통인식에 있다....문현진은 자신을 하나님의 혈통이 복귀된 인류 최초의 참가정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혈통을 절대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축복가정을 참가정에 『접붙여져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된 확대된 참가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양자 양녀의 가정이라고 인식한다」
(『분열』65페이지)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소책자, 41~44페이지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목적은.....하나님과 혈통관계가 끊어진 타락인간을 복귀시켜 가지고, 하나님 직계의 혈통적 자녀로 세우시려는 데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케 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셔야 한다」(『원리강론』395~397페이지)

「지금까지는 모든 가정들이 거짓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본연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가정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이 연결된 참가정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8대 교재 교본『천성경』2171~2172페이지)

「참부모의 혈족이 되어야 합니다. 혈통이 연결된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참부모 참자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축복가정입니다」

(천일국경전『천성경』929페이지)



현진님이 말하는 정체성의 잘못6

⑥「창시자의 사명은 특정 종교의 창설이 아니다」의 기만

「넷째, 문현진은 자신의 아버지인 창교자의 사명을 특정 종교나 교파 창설이 아니라 『참부모와 참가정의 실체적인 기반을 통해 인류를 하늘의 혈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인류구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분열』64페이지)

아버님의 말씀 및 『원리강론』

소책자,44~47페이지

「우리 단체가 창립된 것은 어떠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이 단체가 시작됐고 출발된 것임은 두말할 바 없는 것입니다」(말씀선집113-92)

「여러분! 시의시대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시대입니다.....후천시대에는 하나님 자신이 참부모의 모습으로 만인 앞에 현현하십니다. 따라서 참부모를 모시는 통일교회의 위상은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세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평화경』329페이지)

「통일교회는 언제까지 남아지느냐? 지구성을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의 심정으로 해방할 때까지 통일교회는 가야 됩니다. 결국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해방해야 됩니다」
(8대 교재 교본『천성경』137페이지)

현진님을 따르려고 한 고인·가미야마 타케루씨에게 주신 아버님 말씀

2010년7월16일의 「보트 회의」에서, 고인·가미야마 타케루씨에게 「(현진이는) 이미, 오래 전에 떠난거야, 10년전에」, 「현진이는 선생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다. **도망치고 있다. 현진이가 선생님의 방향으로 와야 되는 거야.**」, 「왜 선생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현진이 쪽으로 가는가?」, 「**현진이는 선생님과 동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른 애들은 선생님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현진님의 정체성이, 모조리 아버님의 말씀과 엇갈려 있는 사실을 봤을 때, 아버님께서 「**도망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처럼,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현진님을 교육하려고 하신 것에 틀림없다. 사실, 2009년3월 8일에 한국·속초에서 참아버님은 현진님한테 「현진이 너도 **딴 데 가지 말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를 따라다녀!**」(말씀선집609-133)고 명하셨다.

그리고 현진님에게 **참부모님에 대한 학습, 가인·아벨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지시하셨다. 아버님께서 현진님이 주장하는 정체성의 잘못을 모두 간파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진상은 『분열』이 주장하는 「**음모설**」이 아니라,
아버님과 **다른 행동을 계속 한 결과**

『통일교의 분열』속에 산견하는 “말씀개찬” 과 “오역”

참아버님이 「한학자를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언급을 함」이라고 말하는 “허위” 주장

「2009. 7. 12 창교자(주, 아버님)가 한학자를 하나님 부인 자리에 세울 수 없다는 언급을 함」(『분열』157페이지)

말씀의 참된 의미

소책자, 25~27페이지

「어머님이 어떻게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나가나?**」를, 일본어판『통일교의 분열』은 「어머님이 **왜**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설 수 있나?**」라고 번역(오역)함으로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세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찬!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통일교회 여러분이 그래요**」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은폐(삭제)** 함으로서, 이 말씀이 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머님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처럼 받아지도록 꾸미고 있다.

이 말씀의 진의는 아버님이 **참어머님 이외의 통일교회의 여성들**한테 「여러분을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세울 수는 없다」, 「**어머님 밖에** 하나님 부인의 자리에 세울 수 없다」고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일교의 분열』속에 산견하는 “말씀개찬” 과 “오역”

성혼에 대해서, 어머니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함. 「아버님이 17세의 어머니를 이용해서 먹었다?」라고 주장하는 “허위” 주장

「어머니 자신이 지금 뭐 선생님이 대해서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분열』127페이지)

「한학자가 17세에 창교자(주, 아버지)를 만나 혈통복귀 신화와도 같은 성혼식을 행한 사건을 천주사적 가치가 아니라 창교자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분열』,127페이지)

말씀의 참된 의미

소책자,47~52페이지

「소녀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는 누군가가 보고한 내용. 그것을 어머니가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문맥을 보면, 이것은 김효남 씨가 보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김씨에게 충고를 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버님이 어머니의 트라우마에 대해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처럼 가장(假裝)하고 있다.

성혼은 어머니의 자랑이다! 어머니는 「원죄없이 태어난 독생자, 독생녀가, 하늘의 소원을 따라 어린양 잔치를 한 날입니다. 하늘에게는 영광, 인류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세계가정』2017년5월호,6페이지)

『통일교의 분열』속에 산견하는 “말씀개찬” 과 “오역”

아버님은, 아벨여성UN창립대회에서, 「참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어머니를 질책하셨다고 하는 “허위” 주장

「2012.7.16 아벨 여성유엔 창설 대회에서 창교자가 기조연설을 하셨다. 기조연설문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창시자는 한학자를 향해 역정을 내면서 「어머니를 내가 길러 왔어요. 어머니가 없습니다. 문 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라고 한학자를 향해 역정을 내고 원고를 읽어나갔다.」 (『분열』251페이지)

말씀의 참된 의미

소책자, 15~21페이지

「어머니가 없습니다」는 문맥으로 보면, 신관(神觀)의 문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기조연설 첫부분에서 아버님은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를 자신의 하나님 이라고 말다툼하면서, 서로 박탈하는 싸움을 하는 이 교단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며, 이것은 「어머니(되신 하나님)가 없습니다」라는 의미로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님 비판에 악용하고 있다.

「제멋대로야, 제멋대로!」는 어머니를 질책하신 말씀이 아니다. 사쿠라이 마사미 씨도 똑같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참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각각 단어를 가려쓰시는 법을 무시하여, 마치 어머니를 질책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머니가 없는 하나님」을 신봉해온 인류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아버님의 인식은 "천지인참부모 정착완료"

아버님 자신의 "인식" 을 무시해서 논하는『통일교의 분열』

『통일교의 분열』에서는, "한학자는 아버님의 "혈통" 을 의심하고 있으며, 아버지에게「불순종」했다. 한학자의 불순종에 대해서, 아버님은 "고심" 하고 계셨다는 것이 진상이었다" 라고 하여, 아버님과 어머니는 일체화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님의 인식과는 다르다.

소책자,21~22페이지를 참조

【아버님의 인식】

『분열』은 아버님의 인식을 무시해서 논하고 있다

아버님은 2010년6월19일(천력5월8일)과 동년6월26일(천력5월15일), 미국·라스베가스에서「최종일체」를 선언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를 세계순회하면서 거행

⇒2012년의 연두표어「천지인참부모 승리해방완성시대」를 발표

⇒3월에「천지인참부모님 승리해방완성시대 선포대회」를 개최

⇒「『천지인참부모정착』...만 이루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심

⇒2012년4월14일, 천화궁에서「천지인참부모정착 실체말씀선포 천주대회를 최종 완성·완결한다」고 선포

⇒7일후의 4월21일, 한국·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를 개최, 「『천지인참부모정착완료』의 강연문을 발표하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은, 억천만대에 있어서 단 하나의 부부(문선명·한학자 양부인)이며.....만왕의 왕은 한분이다」라고 발표

⇒이것은「참부모」의 완전승리의 선언

『통일교의 분열』의 내용은 역사적 “독신행위”

이 서적의 총론적인 「**한학자의 불순종**」 (245페이지) 라는 항목에서는 어머니님의 불순종을 뒷받침하려고 아버지님의 말씀을 18개나 인용하고 있지만, 말씀선집의 원전을 찾아서 그것들을 검증해 보니, 모든 말씀이 개찬된 것이었다. 이 개찬행위는 참 부모님을 얕보는 행위이며, 독자의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독신(瀆神)행위” 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

문제의 서적『통일교의 분열』을 보급시키는 UCI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참어머니에 대한 신앙이 붕괴한 사람들이다. 또한, 참아버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버님을 진심으로 믿고, 공경하고, 모시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태연하게 “말씀개찬” 이나 “오역” 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